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음식점 쿠폰 제공 확대

군외·신지·약산·고금면 등 확충
1만원 쿠폰 10월까지 사용 가능
전남·광주서 1209명 60% 차지
군 950매 쿠폰 비용 음식점 지원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관외 이용객에게 음식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완도를 포함한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의 음식점까지 확대·추진한다. 음식점 할인 쿠폰 사용처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음식점 할인 쿠폰 사용처 확대는 해양치유센터 이용객들이 센터와 가까운 지역에서 완도의 맛을 즐

길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쿠폰은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군민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1만 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차로 진행했다.

이벤트는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점은 손님이 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1차 이벤트 기간 동안 쿠폰을 배부받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 1209명(60%), 서울 208명(10%), 경기 193명(9%), 이외에도 강원도와 제주 등 전 지역에서 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이용 현황은 생선구이 백반과

중화요리 등 단품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주로 이용했으며 전복 빵이나 음료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카페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읍의 한 음식점 대표는 쿠폰 104장을 군 위생관리팀에 제출하며 “센터 이용객들이 이벤트를 통해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산품 구입까지 하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벤트를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회수된 950매의 쿠폰 비용을 음식점에 지급할 계획이며 1차로 제공했던 쿠폰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1만원 음식점 할인 쿠폰.

완도군 제공

북일 갈두 마을 하수도 정비
해남군, 오염물질 해양유입 차단

해남군은 북일 갈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비 25억원 등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1일 30㎡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488km, 55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이달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일면 갈두리는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주거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각 가구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해 생활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모아 정화한 후 방류함으로써 악취 발생, 분뇨 수거 등의 주민 불편 사항이 개선되며 정화된 생활하수를 방류함으로써 인근 해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으며 9월 중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기증도서 4500권 활용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관장 최진수)이 올해 확보한 총 4500여 권의 기증도서를 뜻깊게 활용할 예정이다.

목포시립도서관은 지난달 21일 바이오스마트그룹(회장 박혜린)이 기증한 도서 3000권을 그룹 계열 출판사인 사공사로부터 수령하고 분류작업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목포시립도서관은 3000권 기증도서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기증된 도서에 대해 먼저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고 일부는 직장문고와 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지원하는 등 소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립도서관은 올해 신간 도서와 이용자 희망도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바이오스마트그룹 도서 기증과 시민들의 책 기증 운동에 힘입어 평년 규모의 도서 확충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목포=정기찬 기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신안군, 환경미화원 대상

신안군은 14개 읍·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조사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반복적 동작,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등의 손상이 오는 근골격계질환은 현대 직장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의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질환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작업자 건강증진, 작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총 2회로 나눠 진행되고 지난달 2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신안군 산업보건과의 함께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상담, 작업 자세 개선, 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1차 교육이 진행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피서객들이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다. 지난 7월13일 개장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8월18일까지 2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군 제공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21만명 발걸음

올여름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방문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7월13일 개장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8월18일까지 20만 5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내 58곳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총 63만명으로 그중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한 곳으로, 올여름에는 피서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해양치유를 주제로 하는 모래 조각품 전시, 플라잉 보드 쇼, 비치발리볼 대회,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플로깅 등이 진행됐으며 해양치유 힐링 콘서트와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이 인기였다.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은 군에서 처음 진행한 행사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버스킹, EDM 파티, 다시마 치킨과 완도 전복 요리 등을 선보이며 피서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4000여명이 다녀가며 완도의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신지 명사십리 개장 기간 동안 명사십리 일원에 자리한 해양치유센터도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올여름 신지 명사십리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도 한몫했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7월 말부터는 매일 200명이 넘는 치유객이 방문했으며 명사십리 개장 기간 동안에는 총 5536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해양치유 시설로 딸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췄으며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신지 명사십리에 자리 잡아 정중한 자연과 푸른 바다를 보며 치유할 수 있어 힐링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딸라소풀은 수중 테라피를 받으며 탁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힐링 포인트다.

완도=정태영 기자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목포해경, 10월31일까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대비 관내 유·도선 총 16척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휴 기간을 이용한 유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귀성객으로 인한 도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목포해경 관내 추석 연휴 1일 평균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9월 평시 대비 추석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 기간 유·도선 이용객이 평시 유·도선 이용객보다 유선은 121.6%가 증가했고, 도선은 54.7%가 증가했다.

목포해경은 △추석 연휴 대비 기동점검 운영 △도선 사업장 비상상황 훈련 참관·지도 △차량 적체 도선사업 안전관리 등을 중점사항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9일까지 유·도선 및 유·도선 선착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기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안전 저해행위 중점 단속을 통해 예방중심 단속을 강화하고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다중이용선박 운항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급증하는 유·도선 수요에 대비해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추가 선정

김자반선물세트·쌀귀리빵 등 7가지

강진군은쌀귀리빵 등 7개 품목을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답례품목의 안정성, 신뢰도,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5개 업체,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강진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김자반선물세트, 동백꽃생초, 허브차, 대추방울토마토, 쌀귀리빵 등이 선정되어 총 26개 품

목, 85개 답례품 종류 구성으로 기부자의 선택 폭이 확대됐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목은 이달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진을 제외한 주소지의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인다. 강진군 1호 고향사랑 기부사업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클린-업’이 선정되어 2025년 추진 예정이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답례품 3만원까지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708, 346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